

김동태 농림부장관, 닭질병 관련 업계 관계자 면담

● “닭질병도 구제역 수준 방역체계 구축” 지시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농림부 소회의실에서 수의과학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농림부, 농협, 하림 및 마니커 등 육계계열업체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내 닭질병도 구제역 방역 수준과 같이 국가방역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닭고기수출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닭질병 근절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뉴캐슬병 5개년 계획을 재검토하고 도계장에서의 난계대전염병 방역계획을 일본수준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김 장관은 향후 닭고기 수출을 위한 육계단지에 대해서는 닭질병 방역비를 지원하는 특별대책도 마련하고, 현재 HACCP인증을 받은 도계장에 대해서만 발급하는 수출증명서와 관련 도계장에 대해서는 해당수출국에서 HACCP인증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수출증명서를 발급해주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양계산업발전대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원종

● 10월 30일 창립총회 갖고 공식 출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한국원종(대표 이승우)이 지난 10월 30일 창립총회를 갖고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국내 육용원종계업계는 이제 (주)삼화농원과 (주)하림을 포함한 3자 구도를 이루게 됐다. 특히 종계·부화업계를 비롯 (주)체리부로외에 2개 계열화업체까지 지분참여한 한국원종은 확실한 판매처를 토대로 오는 2006년까지 시장점유율 50% 목표를 선언, 일반 종계분양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승우 대표는 오는 2003년 하바드원종계 3만수(D라인 기준)를 시작으로 2004년 3만4천수, 2005년 3만6천수를 수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백15만수(기존 체리부로보유 원종계생산 포함, 웅추제외), 2004년 1백47만수, 2005년에는 1백67만수의 종계가 생산되며 오는 2006년에 이르러서는 2백만수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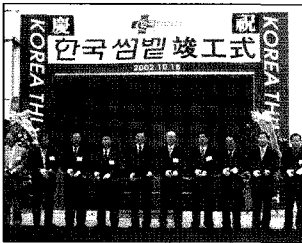
한국원종측은 이를 위해 12억여원을 투입, 내년 6월 입식을 목표로 이달내로 충남 보령 천북장우리에 건물면적 1천5백평 규모의 육성농장 신축을 위한 착공에 돌입하는 한편 총 21억원으로 4월

과 10월 각각 입식을 예정으로 한 2개의 성계사 농장을 역시 보령 천북 하만리(현 체리부로 해인농장)에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초대 이사로 이승우씨를 비롯, 제삼부회장 윤성희 대표, 양지부회장 김우호 대표, 한흥부회장 한익교 대표, 체리부로 고도욱 상무, 조인바이오(구 강남농장) 한재권 대표 등이 각각 확정됐으며, 초대감사에는 (주)마니커 한형석 대표가 선임됐다.

(주)한국쌈뱃

● 신공장 준공식 개최



(주)한국쌈뱃(대표이사 이정주)은 지난 10월 18일 전북 익산시 신흥동 소재에 KVGMP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신공장을 준공, 우수 품질의 동물약품 생산을 통한 국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쌈뱃 신공장은 대지 13,000평에 400평의 사료첨가제 제조시설을 갖추고 연간 7,200여톤의 제품이 생산될 예정이며, 1,700평의 생산시설에서는 주사제를 비롯 액제, 산제, 연고제, 과립제 등 120품목의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이 생산될 것으로 확인됐다.

CJ Feed

● 구 제일제당사료에서 새출발

제일제당사료가 「CJ Feed」로 새롭게 태어났다.

CJ Feed에 따르면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제일좋은 생활문화 기업을 표방하며 새롭게 개발된 CJ그룹의 CI변경에 따라 회사명칭이 이같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CJ Feed는 이번 사명변경을 통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중국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제일제당 사료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CJ Feed는 축산농가에게 좀더 차별화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번에 사명변경과 함께 전국 특약점 이름도 자체 설문조사를 토대로 '컨설팅센터'로 변경했다.

조인(주)

● 구 강남농장에서 상호 변경

조인 주식회사(대표 한재권)는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을 만드는 생명공학 분야에 광범위하게 진출하기 위해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자 강남농장에서 조인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번에 법인체로 전환함으로써 국민기업으로 발돋움하고, 향후 코스닥 등록과 함께 생명공학 사업과 관련된 액란사업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 육계산업 불황 타개를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 개최

한국농어민신문사는 11월 8일 오후 3시 한농연회관 5층 대강당에서 농림부 이재용 축산경영과장, 건국대 김정주 교수, 한국계육협회 김홍국 회장, 마니커 한형석 사장, 체리부로 김인식 회장, 대한양계협회 강호 전무, 축산기술연구소 이상진 가금과장, 농협 김운철 양돈양계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육계산업 불황 타개를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육계수급 및 가격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계열업체가 주축이 되어 종계 및 원종계 감축 등 생산량 조절, 종계장 실태파악 및 강제환우 금지, 저능력·질병 감염계군의 과감한 도태, 원종계 수입쿼터 및 할당관세물량 조절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현축

● 「양계질병과 사양관리 분석」 단행본 발간



월간 현대양계를 발행하고 있는 (주)현축(대표 여술연)은 각종 질병발생 원인과 대처방안 등을 농가현장에 알맞게 편집한 「양계질병과 사양관리 분석」 단행본을 발간했다.

본 단행본은 바이오베트 유종철 양계팀장이 집필한 것으로 오랜 필드경험에서 얻은 질병의 극복요령과 칼라화보 등을 담고 있다. 판형은 4×6배판형이며, 총 608 페이지에 가격은 권당 2만원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현축(02-3665-40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C